

투데이 칼럼

정읍천, '걷는 길' 넘어 '쉽 있는 그늘길' 로 거듭나야

정읍천은 지난 30여 년간 정읍 시민의 삶과 함께해 온 소중한 자산이다. 봄이면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사시사철 흐르는 물줄기는 도심 속 휴식처로서 제 역할을 다해왔다. 60년이 넘는 수령의 벚꽃나무들은 정읍의 현대사를 품은 살아있는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정읍천을 걷다 보면 안타까운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노쇠한 벚꽃나무들은 가지가 썩어 들어가고, 새로 심은 벚꽃나무들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기에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읍이 자랑하는 내장산의 상징, 단풍나무들 역시 정읍천변에서 서는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강한 햇볕에 수피(樹皮)가 타들어 가는 '소피(燒皮)현상'으로 인해 생육에 필요한 물을 흡수하고 있는 단풍의 계절이 오기도 전에 잎을 떨어 버린다. '단풍의 고장'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정읍천의 가을은 어딘가 허전하다. 이제 정읍천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품을 수 있는 '생태적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는 인근 담양의 '관방제림'이나 '죽녹원'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곳이 전국적인 명소가 된 비결은 300년을 버티는 거목들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녹음(綠陰)', 곧 그늘에 있다. 사람들은 나무가 만든 짙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하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고, 그 시원한 품 안에서 국수를 먹고 담소를 나누며 문화를 즐긴다. 반면 정읍천은 어떤가. 60년이 넘는 수령의 벚꽃나무가 즐지어 서 있음에도 정작 한여름 피막별 아래 시민들이 잠시 발을 식힐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산책로를 따라 걷기만 할 뿐, 머물지는 못한다. 나무가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을 모으는 힘은 결국 그늘의 넓이에서 결정된다. 정읍천에 시급한 것은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사람을 머물게 하는 '넓은 그늘'이다.

필자는 제8대 정읍시의원 시절, 정읍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선 시범구간을 정해서 '느티나무' 중심의 대형 교목 식재를 제안했었다. 느티나무는 우리 전통 마을의 어귀를 지켜온 정자목이다. 성장력이 강해 금세 거대한 수관(樹冠)을 형성하며, 일단 뿌리를 내리면 수백 년을 살아 가는 장수목이다. 느티나무가 정읍천 제방 곳곳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여름철 폭염 속에서 가로수 그늘은 주변 온도를 최대 15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생태적 방패가 된다. 또한 웅장한 느티나무 그늘은 강한 햇볕에 취약한 단풍나무들을 보호하여 소피현상을 막아주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느티나무의 황금빛 가을잎은 벚꽃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며 정읍천의 가을 정취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나무를 심는 것은 공간의 기초를 놓는 일이다. 거대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벤치를 놓고 소규모 공연을 열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밀접한 삶의 공간이 활짝 향상을 이루고 정읍천은 자연스럽게 '문화의 천'으로 변모한다. 담양의 국수거리처럼 정읍의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공간이 그늘 아래 조성된다

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곳은 또한 스토리텔링의 장이 될 수 있다. 옛 선조들이 느티나무 아래서 공동체의 대소사를 논했듯, 정읍천의 느티나무 숲에서 전통놀이 체험과 정읍의 실화를 담은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소중한 거점이 될 것이다.

볼론 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은 당장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심는 느티나무 한 그루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10년 후, 20년 후 정읍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고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가로수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이자, 시민들이 불행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다.

도시의 여름은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내뿜는 열기 속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짙은 나무 그늘이다. 벚꽃과 단풍, 그리고 느티나무와 다년생 꽃들이 어우러진 정읍천의 숲, 그 웅장한 자태 속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가 흐르는 풍경을 꿈꿔본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정읍천이 단순한 걷는 길에서 벗어나, 그늘과 품,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정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독자제언

도로 위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 조심

겨울철은 기온차가 클뿐만 아니라 눈이 많이 내릴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겨울철에는 특히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블랙아이스는 노면에 얇게 형성된 무명 얼음층으로, 일반 아스팔트와 거의 구분되지 않아 운전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진입하게 된다. 특히 교량,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며, 한순간의 미끄러짐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블랙 아이스 위에서는 제동거리와 조향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세 추돌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에는 도로가 마른 것 같아 보여도 항상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운전해야 한다. 반드시 20~30% 감속 운전을 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커브길, 고갯길, 교량과 같은 결빙 위험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고, 급제동이나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을 피해야 한다. 또한 차량 점검 등 관리도 중요한 예방 방안이다.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우체인 등을 준비하고 브레이크, 배터리, 부동액 등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의 확인과 감속이 나와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매 순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최다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의 멕시코 군사 개입 없을 것"



클라루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미국의 멕시코 영토 내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설

건강 습관이 최고다

새해 소망은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다.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의사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건강을 위한 실천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고난도 수술, 밀려드는 환자들을 대하는 의대 교수들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까 궁금하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걸으려고 노력한다. 의사들은 수술 환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 보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조금 빨리 걸으려고 노력하고 걷는 것에 집중해서 걷다 보면 일단 잡생각이 사라진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몸이 활력이 생긴다.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자기 일에 몰입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나온다. 도파민이 나오면 물

입을 하게 된다.

자기 일을 몰입해서 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다. 요가 매트가 있다면 10분,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권한다. 걷고 계단 오르고 할 때 운동 삼아서 열심히 하자.

어떤 운동이 좋다고 말하는 것 좋아하고 또 의견상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잠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어떤 한 부분에 매몰이 돼서 편중된 식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제철 과일이 있고 제철 채소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순응하면서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들은 특별한 비법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

내란 재판 마무리 수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특검 측의 추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을 두고 반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16일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앞서 특검 구형과 함께 변론이 종결됐는데 오늘 변론이 재개됐고, 30분간 증거조사가 진행된 뒤 마무리 했다.

변호인단은 수백 건의 증거를 추가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출 후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던 공판을 추가로 열어줄 걸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500건이 있어 추가기일을 열어야 할 것,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선고 해를 것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하

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에 앞서 변호인단은 채부 절차 전 잠시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이를 허가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일을 잡아 증거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구형 전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도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 진행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